



■ 제주카지노 145억 증발사건... 꼬리무는 의문들

# 돈금없는 81억, 누구 돈이냐?

## 사라진 돈의 출처와 행방·범행수법 역추산무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145억원 증발 사건’ 수사는 공범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사라진 돈의 명확한 출처를 포함해 사라진 돈의 일부로 추정되는 다량의 현금에 왜 카지노 내 다른 금고에서 발견됐는지 등 여러 쟁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의문으로 남아 있다.

▷원인 포함 공범 등 3명 추적=이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4일 30대 중국인 B씨와 또 다른 30대 C씨 등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금과 함께 사라진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 임원 A(55)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범 2명을 추려냈다. B씨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C씨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C씨의 국적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공범 2명은 랜딩카지노 직원은 아니며, 최근 81억5000만원이 발견된 카지노 금고의 주인과 연관된 인물이다.

▷보안 절차참고 태연히 돈 빼내=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주범적으로 추정되는 A씨는 카지노 측이 정한 보안 규정을 지키며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말 휴가를 내고 자취를 감췄으며, 카지노 측으로부터 지난 5일 횡령혐의로 고소당했다.

랜딩카지노에는 목욕탕 라커 같은 물품보관소가 있으며, 이 보관소에 VIP카지노 고객용 금고 수십 개가 있다. 금고는 고객 열쇠와 카지노 직원이 보유한 열쇠가 동시에 있어야 열수 있다. 금고 중에는 A씨 이름으로 된 금고도 있다.

경찰은 사라진 돈이 A씨 명의 금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랜딩카지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소속으로, 카지노 개장 초기부터 자금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 돈을 빼간 것이 아니라 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카지노 내 다른 직원과 동행해 금고에서 돈을 꺼냈다”며 “카지노 측은 A씨를 특별히 제재하거나(A씨가 돈을 빼돌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1억원 왜 다른 금고서 발견됐나=경찰은 사라진 돈의 일부로 보이는 자금을 회수해 지폐에 적힌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찾은 돈은 126억원이다. 이중 81억5000만원은 A씨 명의 금고와 같은 장소에 있던 카지노 고객 금고에서, 나머지는 제주시에 모쳐 등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금고에서 회수한 81억5000만원이 사라진 돈의 일부가 맞다면

A씨 금고에 있던 돈이 어떻게 다른 금고로 옮겨졌는지, 그 방식부터 의문이다. A씨가 자신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을 빼내 그중 일부를 공범에게 전달하고, 공범이 다시 고객 명의 금고에 넣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은 공범이 금고의 주인과 연관된 인물이라고 밝혔을 뿐, 공범과 금고 주인이 서로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사라진 돈의 명확한 출처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젠펀데터먼트코리아는 출금 사라진 돈이 본사인 랜딩인터내셔널의 자금이라고 밝혀왔지만 회삿돈을 왜 A씨 명의 개인 금고에 보관해왔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회삿돈이 아니라 카지노 고객이 맡겨 놓은 돈일 수 있다’는 식의 갖가지 추측만 무성하다. 경찰도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사라진 돈의 명확한 출처와 성격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랜딩카지노(5581㎡)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카지노다. 영업 첫해 전국 16개 카지노 중 가장 많은 38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선전했지만 후기 업 회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매출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며 경영난에 빠졌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14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소리 철새도래지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시설물이 설치됐다. 이상민기자

## 오소리 철새도래지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 반경 3km 특별관리지역 설정

서귀포시 성산읍 오소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알락오리)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해당 폐사체에 대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AI 급행동지침에

의거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예찰지역 내 33개 농가의 닭 42만 6000마리와 오리 1만5000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오소리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통제초소 5개소의 운영을 강화해 울레곶과 뉘시곶 등을 통해

하고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투입해 일제 소독을 진행한다. 아울러 사육농가 축사에 대한 소독은 물론 축사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폐사체 발견 21일 경과 후인 오는 26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한라매, 6일에 한번꼴 재난·응급 출동

### 제주 부속섬 등 도서지역 현장 출동이 대다수

제주소방항공대 소속 소방헬기 ‘한라매(사진)’가 1년 6개월여 사이 6일에 1번꼴로 재난·응급 사구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9년 6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라매가 출동한 건수가 242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152건이 교육 훈련 목적의 출동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구급 목적 53건, 수색 목적 25건, 구조 목적 4건, 화재 진압 목적 3건 등의 순이다. 교육훈련을 제외한 출동 건수를



장소별로 분류하면 제주 부속섬 등 도서 지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상 22건, 산악 12건, 도외 지역과 기타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

었다. 소방안전본부는 한라매 출동 수요가 도서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서지역 응급환자 헬기 요청·이송 기준’을 마련했다.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헬기 요청·이송 대상은 ▷중증 응급환자(4대 응급질환) ▷기타 외상환자 ▷기타 중증응급질환 준하는 환자 ▷응급의료장사자가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지역 특성상 산악사고와 도내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방헬기 요청·이송 기준을 홍보해 무분별한 출동 요청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제주교육청 민원서비스 전국 ‘최악’

### 행안부 기관 종합평가서 5등급 중 최하위 수도

제주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개)과 시·도교육청(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243개)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민원제도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고충민원처리·민원 만족도)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이 강조

됐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 한 근무환경(비상벨, CCTV, 안전요원)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이며, 종합점수에 따라 A, B, C, D, E 등 5개의 등급이 매겨진다. 가는 최우수이고, 마는 최하위다.

평가 결과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청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인 ‘마’ 등급에 선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반면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우도 동쪽 42km 해상서 3만t 화물선이 어선 ‘특’

제주 해상에서 외국 국적 화물선과 우리나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쯤 제주도 우도 동쪽 약 42km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A호(3만3044t급)가 성산선적 어선 B호(45t급)의 선수 부분을 충돌했다.

중국 난통에서 전남 광양항으로 향해 중이던 A호는 21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B호에는 9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을 수습했다.

해경은 충돌 지점을 촬영한 후 A호 선장·선사와 연락을 취했으며, A호가 B호를 충돌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상해주기로 상호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PAA

바실러스

효소당밀

필리핀산

PGA

왁스바실러스

발근제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745-8900, H.P : 010-9258-7508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1~5년생)

- 황금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레드향
- 하례조생
- 레온
- 5년생(화분)
- 일남일호

※ 신상품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